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이란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 있는 인접한 세 유적군의 총칭입니다. 이 유적은 나카이 유적(기원전 1,000 년~기원전 400 년), 훗타 유적(기원전 3,000 년~기원전 2,000 년), 이치오지 유적(기원전 4,000 년~기원전 2,000 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니이다강 근처 구릉지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적을 조사한 결과 무덤 구덩이, 저장 구멍, 토기, 수혈식 건물 터와 대량의 철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출토품은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의 기획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획전에서는 선사 시대 일본 북부의 생활상과 공예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카이 유적

나카이 유적은 조몬 시대 말기(기원전 1,000 년~기원전 400 년)에 약 700 년 동안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유적의 중심에 있는 구릉지에서는 해시계 모양으로 배열된 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장소가 제사의 장소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릉지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여러 개의 무덤 구덩이가 발견되었고 남쪽과 북쪽에는 낮은 습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낮은 습지대에서는 석기, 목기, 토기, 철기와 더불어 호두껍데기와 밤껍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릉지의 북쪽 끝에서는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카이 유적의 식물과 생활

이 유적의 토양 속 꽃가루, 목기와 철기, 그리고 보존된 종자 등을 연구한 결과, 이 마을에 생육했던 식물의 종류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호두나무와 칠엽수는 식량인 동시에 수혈식 건물이나 목공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옷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정제하여 옷을 만들고 유연성이 있는 사철나무 목재로는 활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유적은 마을 사람들이 주변의 식물을 이용하기 위해 토지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카이 유적의 토기와 철기

나카이 유적에서는 정교한 장식이 달린 토기와 복잡한 모양의 철기가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이 제작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고도의 제작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가메가오카식 토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양식의 토기는 일본 북부에서 나타나는 조몬 시대 말기의 미학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메가오카식’이라는 용어는 아오모리현 북부의 가메가오카 석시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메가오카식 토기는 도쿄국립박물관,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에는 주로 나카이 유적과 니이다강 건너편에 있는 가자하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기원전 2,000 년~1,000 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얇은 상태에서 양 손을 모은 자세를 취한 국보, 합장 토우와 그 외 수백 점의 중요문화재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훗타 유적

훗타 유적은 나카이 유적보다 2,000 년 정도 앞선 기원전 3,000 년~기원전 2,000 년 무렵의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는 토기, 나무 열매를 저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구덩이, 그리고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대다수의 토기는 입구가 넓고 바닥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토기에는 장식이 많고 대담한 문양이 덧대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 유적보다 훨씬 이후의 시기에 형성된 나카이 유적의 토기와 같은 정교한 마감과 복잡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몇몇 토기는 하치노헤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치오지 유적

이치오지 유적은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의 세 유적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원전 4,000 년~기원전 2,000 년 시기의 것으로 그 규모 또한 가장 큼니다. 이 유적에서는 수혈식 건물 터와 대량의 토기 및 토기 편이 포함된 최대 1.5m 두께의 층이 땅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층에는 토기 외에도 물고기와 동물의 뼈, 그리고 뼈나 뿔로 만든 낚싯바늘, 빗 등의 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다란 원통형에 새끼줄 문양(조몬, 縄文)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대부분은 훗타 유적이거나 나카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보다 장식이 적습니다. 하치노헤시 박물관은 이치오지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

가메가오카식 토기의 대표적인 출토품 대부분은 이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출토품으로는 토기 외에도 토우, 관옥(대롱옥, 돌을 대롱 모양으로 성형한 장식품), 기타 장식품과 옷칠을 한 활이나 바구니 등의 도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선사 시대 일본인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하며 공예 체험 코너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뮤지엄 숍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포켓 학예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다국어 음성 해설 가이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적

‘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 중에서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링크], 고마키노 유적[링크],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링크], 후타쓰모리 패총[링크] 등의 유적이 아오모리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테현의 고쇼노 유적[링크]도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니 한번쯤 들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